#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 위한 금융지원 나서

## 전주시, 미소금융 전북전주법인과 소상공인 위한 금융안전망 구축

을사년 새해를 맞아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하고 나선 전주시가 미소금융 전북전주법인과 손을 맞잡고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들에 대한 자금도 지원키로 했다.

전주시와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 전북전주법인, 전주시 소상공인연합회는 22일 시청 3층 회의실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진대권 미소금융 전북전주법인 이사장, 유장명 전주시소상공인연합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은 경기침체와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에게 금융지원을 확대해 경영 회복을 돕고, 지역경제 위기 극복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협약에 따라 시는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에 대해 대출이자를 3년간 3%씩 이차보전에 나설 계획이다. 또, 미소금융 전북전주법인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상담 및 대출 실행에 나서고, 소상공인연합회는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힘쓸 예정이다.

을사년 새해를 맞아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하고 나선 전주시가 미소금융 전북전주법인과 손을 맞잡고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들에 대한 자금도 지원키로 했다.

특히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인해 기존 신용등급 1~7등급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전주시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대상에서 제외됐던 신용등급 6~10등급과 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등 금융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 전북전주법인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를 마친 상태로, 협약 체결 이후 즉시 본격적인 대출 실행 및 이자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대출이자의 연 3%를 3년간 지원하며, 올해 총 30억 원 규모의 대출(개인 한도 2,000만 원)을 실행할 예정이다. 대출에 관한 자세한 상담은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 전북전주법인(063-285-4031)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을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2023년과 지난해에는 총 1700억 규모의 전주시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통해 4,000여 소상공인을 지원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7월부터는 장기화된 경기침체 속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기(旣) 대출자에 대해 8년간 3% 이자 지원 및 원금 상환을 연장해주는 희망더드림 안심연장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번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통해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이 경영 회복의 기회를 마련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경제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전주시가 강한 경제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준 미소금융 전북전주법인에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상공회의소(회장 김정태)는 22일 전주 신중앙시장 일원에서 전주상의 회장단과 의원단 및 임직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맞이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 및 이웃사랑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 설맞이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

### 전주상의, 사회복지시설 위문금·물품 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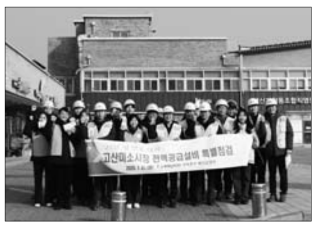
전주상공회의소(회장 김정태)는 22일 전주 신중앙시장 일원에서 전주상의 회장단과 의원단 및 임직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맞이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 및 이웃사랑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서 전주상의는 가두캠페인과 장보기 행사를 진행하고 구입한 물품을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했다.

김정태 회장은 "대내외 경제환경이 불확실하지만 올 한해는 전통시장과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입가에 미소가 넘쳐날 수 있도록 내수가 회복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 한다"고 강조하고, "작은 정성이지만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보탬이 되어서 민족 최대 명절인 설에 모든 분들이 따뜻하고 행복하길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전주상공회의소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격려하고자 매년 설과 추석 명절에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와 더불어 도내 사회복지 시설에 백미를 포함한 1천여만원 상당의 지역생산 물품과 온누리상품권을 전달하고 있다.

/김옥기기자




## 한전 전북본부, 도내 전통시장 전력설비 안전점검 시행

한국전력 전북본부(본부장 연원섭)는 지난 21일 완주군 고산미소시장 등을 찾아 한전의 전력공급 설비뿐만 아니라 고객설비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시행하였다.

한전에서는 1월 13일부터 1월 24일까지 설 명절을 맞이하여 많은 이용객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도내 14개 지역의 전통시장 59개소와 전주역 등 27곳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전력설비 특별안전점검(열화상진단, 드론진단 등)을 시행 중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전선 및 전주 등의 전력설비 △변압기 부하 △배선불량 및 전기기기 접지상태 등으로 위험요인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신속한 보수 및 사후관리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방침이다.

/김옥기기자

## 경진원, 전북형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 수출기반 조성·수출마케팅 비용 지원… 내달 5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원장 윤여봉, 이하 경진원)에서는 도내 수출활성화를 위한 전북형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2월 5일까지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전북형 수출바우처는 도내 공장등록 제조·유통(도내 제품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기반 조성 및 수출마케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수출실적 기준 수출 초보 30개사와 수출 주력 10개사로 나누어 각각 1,300만원,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경진원은 2024년 전북형 수출바우처를 통해 도내 40개 기업을 지원해 해외 바이어 상담 775건, 상담액 4,315만 달러, 계약액 1,179만 달러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본 사업은 수출 전반의 과정에서 활용도가 높은 사업인 만큼 도내 기업들의 관심이 뜨겁다. 작년 기준 100여 개 이상의 기업들이 지원했으며, 올해도 비슷한 경쟁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경진원에서는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비하고 FTA를 활용한 수출 지원을 위해 '전북FTA통상진흥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원산지 증명서 발급 지원 등 관세사가 상주해 무료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찾아가는 교육 및 설명회, 컨설팅을 추진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전북특별자치도 수출통합지원시스템(jbexport.or.kr)과 경진원 수출전략팀(063-711-2180)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옥기 기자

##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 기원

### 농협 전북본부, 사업추진 결의대회서 유치 염원 동참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김성훈)는 22일 관내 전 사무소장들과 임직원이 참석한 사업추진 결의대회에서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를 염원하는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김성훈 NH농협은행 전북본부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을 2036 올림픽 전북 유치를 기원하는 영상을 시청하고, 피켓 퍼포먼스를 보여주며 유치에 대한 강한 염원을 공유했다.

김성훈 본부장은 "2036 하계올림픽 성공적 유치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위상을 높이고, 함께 비상하자"며, "전북이 세계로 나아가는데 다같이 힘을 보태자"고 밝혔다.

한편, 전북농협은 관내 지점 150여곳에 2036 올림픽 유치 기원 플래카드를 걸고, SNS 해시태그 이벤트 및 올림픽 유치 기원 그림 공모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하계올림픽 유치 기원에 동참하고 있다.

/이만호기자

## 바이오진흥원, 2025년 신년맞이 시설물 안전점검 시행

###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산업재해 예방 목적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이은미, 이하 바이오진흥원)은 2025년 신년을 맞아 1월 21일,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력 강화를 위해 시설물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주요 시설물 안전사고 위험 요인의 현안을 공유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실시되었으며, 실효성 있는 점검을 위해 안전/시설분야 담당자, 분야별 외부전문가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진행되었다.

바이오진흥원 이은미 원장은 "안전은 사업장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가치이며, 이를 위해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안전점검이 필수적"이라며,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직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바이오진흥원은 연구실안전관리법 준수를 위한 체계 개선, 임직원의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 안전문화 정착과 현장에서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김옥기 기자